

사회

“이젠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김대중 前 대통령 영결식

광주·전남 주민들 ‘마지막 배웅’ 옛 도청 추모문화제 고인 뜻 기려

민주·인권·평화운동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와 통합’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 추모객들은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과 대인시장, 목포역 광장 등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는 장의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의 조사가 남독독자 합동분향소에 모인 500여명의 추모객들은 일제히 고개를 떨궜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시간에도 조문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추모객들은 옛 도청 벽면에 내걸린 두 점적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가로 5m, 세로 6m의 걸개그림을 바라보며 영면(永眠)을 기원했다. 이날 시민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 수는 1만5천여명. 추모객들은 한반도기에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메시지를 적었다.



“기어이 가십니까...” 23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영결식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대사모’(대인시장을 사랑하는 모임)는 지난 18일 서거 소식을 접한 직후 회의를 거쳐 대인시장 내에 분향소를 설치, 운영했다. ‘대사모’ 회원 정안식(65)씨와 김선옥(여·46)씨 등은 “서거 후 오늘까지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을 맞이했다. 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 환호를 지르던 게 오늘과 같은데...”라며 “이제는 TV 앞에 모여 영결식을 지켜봤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자 상인들도 따라불렀다.

런된 50곳의 분향소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시·도가 집계한 추모객 수는 34만1천628명으로, 이날 밤까지 40만명이 넘는 추모객이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김 전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옛 전남도청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인자한 미소’ 마치고 살아 계신듯

전남제일고 DJ 흥상... 추모객 눈길 사로잡아



전남제일고(옛 목포상고)에 설치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 영정 옆에 김 전 대통령의 흉상(사진)이 놓여 추모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청동으로 만든 높이 80cm의 이 흉상은 목포상고 63회 졸업생 김영필(43·회사원)씨가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목포상고 흥상 문화에 기증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조문왔다가 분향소를 지키는 선배에게 ‘김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인 흉상 얘기를 했다. 이 흉상은 1996년에 제작된 것으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수 목포상고 흥상문화회장 /목포=이성진기자 sslee@

관공버스 추돌 운전자 중상

23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이모(27)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관공버스(운전자 김모·54)를 추돌, 이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이씨가 버스가 멈추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lee@

‘DJ 사랑’ 60대 한센인 통한의 눈물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생 ‘짝사랑’한 60대 한센인이 영결식을 지켜보며 통한의 눈물. ○고흥군 소록도에 사는 이남철(60)씨는 23일 TV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며 지난 40여년간 간직해온 DJ에 대한 애도와 사랑이 다했다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활동한 실신. ○이씨는 1966년 5월 소록도에 들어간 뒤부터 김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나 연설 장면을 수백회에 걸쳐 녹화하고 연설문집 등을 애지중지 간직하는 등 각별한 ‘DJ 사랑’을 과시. ○이씨는 “평생 고인의 업적을 쫓고, 가족 등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모두를 미쳤다고 했다”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빈다”고 애절한 심정을 토로. /동부취재본부=주직기자 gju@

복받치는 슬픔... 하의도 ‘눈물바다’

주민 200여명 영결식 지켜보며 통곡

“부디 좋은 곳에 가서서 편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으로 가득했다. 하의도 주민 200여명은 이날 면사무소 앞 마당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영결식을 지켜보며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특히 주민들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 4개월 전 하의도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복받치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하의도 주민들의 아픔을 아는 듯 영결식 내내 보슬비가 내렸다. 주민들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전국에서 불려온 추모객들을 정성껏 맞으며 고인에 대한 마지막 정을 나눴다. 하지만 하루 1천여명에 달하는 추모객을 맞이하면서도 정작 고인을 잃었다는 사실은 실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추모객들의 식사를 담당해

온 자원봉사자들 역시 이날은 고인과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하의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은 서거 후 김치나 고사리 나물 등을 각자 집에서 가져와 추모객들에게 대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진도 씻김굿이 열릴 22일 저녁에는 면사무소 마당까지 음식을 나르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 이들은 또 씻김굿을 보기 위해 찾아온 500여명의 추모객들과 함께 ‘굿판’을 지켜보며 김 전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이날 씻김굿은 무형문화재 고(故) 박병선 선생의 딸인 박미옥(48)씨의 주재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춤과 노래, 전통가락이 어우러진 ‘굿판’으로 김 전 대통령의 영혼과 산사람들을 위로했다. 김거식(75) 할머니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춤추고 기뻐했던 게 잊고 음식을 나르며 슬픔을 함께 나눴다”며 “부디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매일매일 빌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대물건리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무방물건만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010-223-1140, 5210 011-602-2532.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